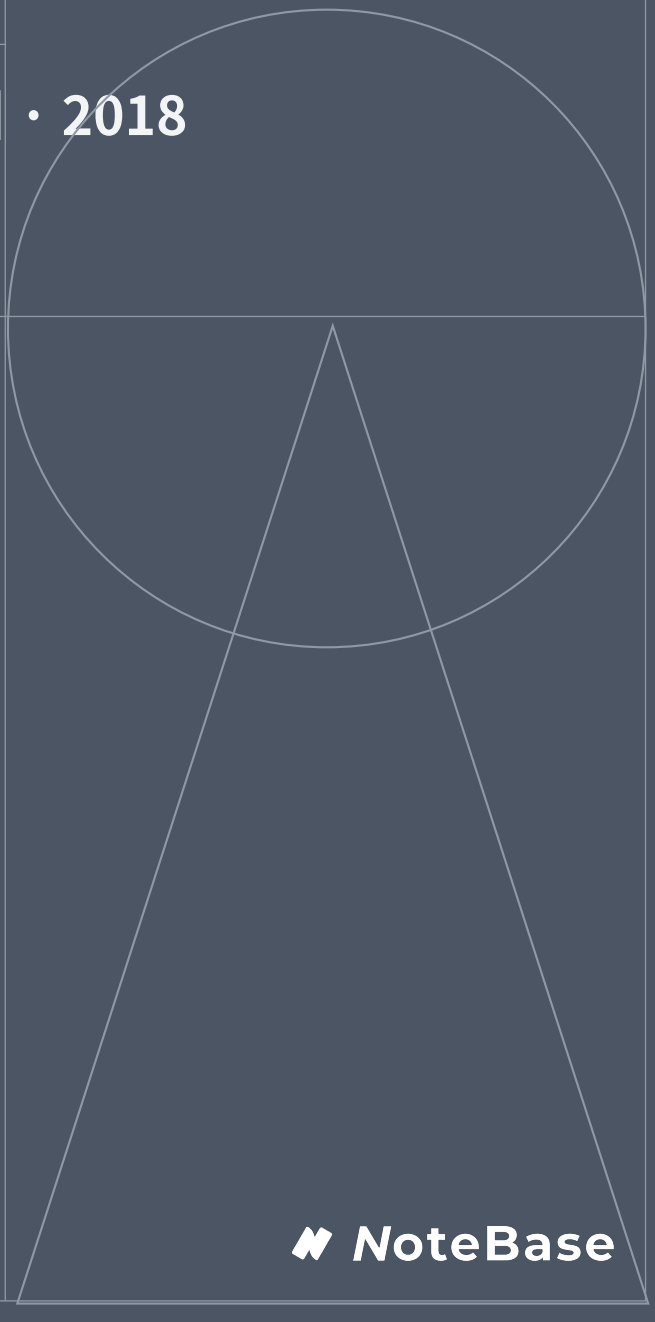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8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8

문 1.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로만 묶은 것은?

① 공책, 에움길　　② 서예, 뒤웅박

③ 팔괘, 외골목　　④ 자료, 늦가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각 음절의 모음이 모두 단모음인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고, 이중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조음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다. 표준 발음에서 ㅚ와 ㅟ는 단모음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고를 때에는 이 허용 발음까지 고려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공책'의 ㅗ·ㅐ와 '에움길'의 ㅔ·ㅜ·ㅣ는 모두 단모음이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② X — '서예'에는 이중 모음 ㅖ가 들어 있다. 또한 '뒤웅박'의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틀린 표현인 '서예, 뒤웅박'은 '공책, 에움길'로 고쳐야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묶음이 된다.

③ X — '활개'에는 이중 모음 ㅘ가 들어 있다. '외골목'의 ㅚ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틀린 표현인 '활개, 외골목'은 '공책, 에움길'로 고쳐야 한다.

④ X — '자료'에는 이중 모음 ㅛ가 들어 있으므로, '늦가을'의 모음들이 단모음이더라도 묶음 전체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인 '자료, 늦가을'은 '공책, 에움길'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ㅚ와 ㅟ를 글자 모양만 보고 언제나 단모음으로 처리하거나, 두 단어 중 하나만 확인하고 묶음 전체가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②의 ㅖ, ③의 ㅘ, ④의 ㅛ처럼 분명한 이중 모음을 먼저 찾아내면 빠르게 제외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를 음절별로 나누어 모음을 적고, ㅑ·ㅒ·ㅕ·ㅖ·ㅘ·ㅙ·ㅛ·ㅝ·ㅞ·ㅠ·ㅢ 같은 이중 모음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한다. 이어 ㅚ·ㅟ의 허용 발음까지 살핀 뒤, 묶인 모든 단어가 조건을 충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공책은 ㅗ·ㅐ, 에움길은 ㅖ·ㅜ·ㅣ로 모두 단모음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화에서 박 과장이 고려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박 과장: 말씀 낮추세요. 부서 밖인데 어때요. 부서 내에서야 다른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씀 낮추세요. 오히려 제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 이 대리: 그래도 상사인데. 하긴 직장 생활 한평생 할 것도 아닌데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① 성별에 따른 협력 방식 ② 계층에 따른 공감 방식
③ 세대에 따른 설득 방식 ④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화 참여자가 상대와의 관계뿐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존대 방식을 조절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은 같은 상대에게 말하더라도 장소, 주변 사람의 유무, 공식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의 정도를 달리하는 언어 사용 방식이다. 박 과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부서 안에서는 직급에 맞는 존댓말을 쓰되, 부서 밖에서 둘만 있을 때는 말을 낮추어 편하게 대화하자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성별에 따른 협력 방식'이 틀린 표현이다. 대화에는 성별에 관한 정보나 협력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이다.
② X — '계층에 따른 공감 방식'이 틀린 표현이다. 과장과 대리라는 직급 관계는 나타나지만, 박 과장이 고려하는 핵심은 공감 방식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있는지와 둘만 있는지에 따른 존대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이다.
③ X — '세대에 따른 설득 방식'이 틀린 표현이다. 세대 차이에 관한 정보가 없으며,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분류하는 대화도 아니다. 올바르게는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이다.
④ O — 박 과장은 부서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와 부서 밖에서 둘만 있을 때를 구분하여 말의 높임 정도를 달리하자고 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계층'은 과장과 대리의 직급 차이가 실제로 드러나므로 가장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선지 전체는 '공감 방식'이고, 대화의 중심도 직급 자체가 아니라 주변 직원의 유무와 장소에 따라 존댓말 사용을 달리하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에서 장소, 공식적·사적 장면, 제삼자의 유무에 따라 말투나 높임의 정도가 달라지면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으로 판단한다. 선지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확인하여 대화의 실제 행위와 모두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다른 직원이 있는 부서 안과 둘만 있는 부서 밖의 구분은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린 달빛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했다. 한 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
>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거나,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음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서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맑은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맑은 거울을 본다면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깨뜨려질 바에야 차라리 먼지에 흐려진 채로 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려진 것은 겉은 흐릴지라도 그 맑은 바탕은 없어지지 않으니, 잘생긴 사람을 만난 후에 갈고 닦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음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림을 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하다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 — 이규보, 「경설」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작가의 직접적 개입이 약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② '흐린 거울'과 '맑은 거울'의 대비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③ 비유적인 표현의 활용을 통해 작가가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작가의 분신인 '나그네'와 일반적 인식을 대표하는 '거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대화 형식, 대조와 비유의 기능을 파악하고,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인물과 일반적 통념을 대변하는 인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문답 형식은 인물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 나그네는 거울을 얼굴을 비추고 단장하는 도구로 보는 일반적 통념을 대변하고, 거사는 흐린 거울에서 오히려 흥취를 얻는다고 말하며 세속적 통념을 넘어선 작가의 깨달음을 드러낸다. '맑은 거울'은 외모를 비추고 가꾸려는 세속적 태도와 연결되고, '흐린 거울'은 외면의 실용성을 벗어나 내면의 흥취를 추구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거사의 행동을 궁금해하는 나그네의 질문과 거사의 답변으로 생각을 전개하므로,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보다 개입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다.

② O — 나그네는 얼굴을 비추고 단장하는 데 유용한 '맑은 거울'을 당연시하지만, 거사는 '흐린 거울'에서 흥취를 얻는다. 두 거울의 대조를 통해 세속적 실용성을 중시하는 관점과 내면의 흥취를 중시하는 관점이 드러난다.

③ O — 먼지가 끼어 흐려진 거울과 맑은 거울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비유적 소재이다. 이를 통해 거사는 외면을 가꾸는 세속적 태도보다 내면의 흥취를 추구하는 태도를 제시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나그네'를 작가의 분신으로, '거사'를 일반적 인식의 대표자로 본 것이다. 실제로는 거사가 작가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인물이고, 나그네가 거울의 일반적 용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통념을 대변한다.

오답 포인트

대화를 이끄는 질문자가 곧 작가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인물의 역할은 발화량이나 질문 여부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나그네의 의문이 일반적 상식을 제시하고, 거사의 답변이 그 상식을 넘어서는 주제를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체 고전 수필에서는 먼저 질문하는 인물과 답하는 인물의 주장 내용을 나눈다. 세속의 상식이나 통념을 제시하는 쪽과 이를 뒤집어 새로운 깨달음을 말하는 쪽을 구별하면 작가의 분신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나그네는 일반적 통념, 거사는 작가의 깨달음이다. 맑은 거울은 외면의 실용, 흐린 거울은 내면의 흥취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에서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의 구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류 생활의 과거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났다. 역사란 그 많은 사실(事實)들 중에서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 즉 사실(史實)을 뽑아 모은 것이라고 우선 말할 수 있다. 사실들 속에서 사실(史實)을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성립시키는 일차적인 작업인데, 역사의 사료로서 적절한 것을 선별해 내는지가 그 관건이다. 어떤 기준으로 수많은 사실들 속에서 유효한 사실(史實)을 가려내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체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과 시대적 맥락에 그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 다만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폭넓은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선택된 사실(史實)이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가 진실성이 더 높은 사실(史實)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가 가진 역사적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대중의 동의가 진실한지 여부
②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여부
③ 유일한 가치와 대표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④ 역사가의 사적인 견해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을 구분하고, 수많은 과거의 사실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선별하는 기준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실(事實)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수많은 일을 뜻한다. 사실(史實)은 그중에서 역사가가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뽑아낸 사실이다. 이때 더 높은 진실성을 인정받으려면 같은 시대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폭넓은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 시대의 역사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중의 동의가 진실한지 여부'는 글이 제시한 선별 기준이 아니다. 글의 '폭넓은 동의'는 선택된 사실(史實)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다. 올바르게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사실(史實)을 가려내는 기준이다.
② O — 첫 문단에서 사실(史實)을 '수많은 사실(事實)들 중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이라고 직접 규정하므로 가장 적절하다.
③ X — 글은 '유일한 가치'나 '대표성'을 선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수많은 사실 가운데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史實)을 선별한다.
④ X — 역사가와 시대적 맥락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역사가의 사적인 견해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그 시대의 역사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을 선별한다.

오답 포인트

글에 '폭넓은 동의', '역사가', '시대적 맥락'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①이나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질문은 사실(事實)에서 사실(史實)을 가려내는 직접적인 기준을 묻는다. 그 기준은 첫 문단에 명시된 '역사적 가치와 의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념의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글이 해당 개념을 처음 정의하는 문장을 찾는다. 이 글에서는 '사실(史實)이란' 뒤에 이어지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사실(事實)은 일어난 일, 사실(史實)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아 선별된 일이다.

NoteBase

문 5. 다음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사례를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 ○ 대치: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① '팥하고[파타고]'를 발음할 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② '떡잎[떵닙]'을 발음할 때, 첨가 현상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③ '밝고[발꼬]'를 발음할 때, 축약 현상과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④ '부엌도[부억또]'를 발음할 때, 대치 현상과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 과정에서 음운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대치·탈락·첨가·축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치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음운 수가 그대로인 현상이다.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져 음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겨 음운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한 음운으로 바뀌어 음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닫히고[다치고]'에서는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고, 이어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대치가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탈락 현상'이며, 올바르게는 '축약 현상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이다.
② O — '떡잎[떵닙]'에서는 먼저 없던 ㄴ이 첨가되어 '떡닙'이 되고, 이어 받침 ㄱ이 뒤의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대치가 일어난다. 따라서 첨가 현상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③ X — '밝고[발꼬]'에서는 겹받침 ㄺ의 ㄱ이 없어지는 탈락이 일어나고, 뒤의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바뀌는 대치가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축약 현상'이며, 올바르게는 '탈락 현상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이다.
④ X — '부엌도[부억또]'에서는 받침 ㅋ이 음절 끝에서 ㄱ으로 바뀌고, 뒤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뀐다. 두 과정 모두 대치이므로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첨가 현상'이며, 올바르게는 '대치 현상만 일어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ㅎ이 발음에서 따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곧바로 탈락으로 판단하거나, ③의 두 음운 변화를 축약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축약은 두 음운이 제3의 한 음운으로 합쳐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와 발음을 음운 단위로 차례대로 대응한다. 음운 수가 같고 음운만 바뀌면 대치, 하나가 없어지면 탈락, 새 음운이 생기면 첨가, 두 음운이 제3의 한 음운으로 합쳐지면 축약으로 판단한다. 한 단어에서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대치는 교체, 탈락은 감소, 첨가는 증가, 축약은 둘이 합쳐 하나가 되는 현상이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그는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사코 우겼다.

① 참 특이한 사람 다 보겠군.
② 지금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지.
③ 이번 달까지 꼭 목표량을 달성하겠다.
④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 속 부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각 선지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사코'는 어떤 일을 끝까지 고집하여 기어이 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제시문의 '한사코 우겼다'는 낚시하러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내세웠다는 의미이다. 이 문맥에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꼭', '기어이', '반드시'와 의미가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 '참'은 '정말' 또는 '매우'라는 뜻으로, '특이하다'의 정도를 강조한다. 고집하여 끝까지 하려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 풀면 '정말 특이한 사람 다 보겠군'이다.
② X — '겠지'는 지금 떠날 경우 내일 새벽에 도착할 것이라는 추측이나 예상을 나타낸다. 강한 고집이나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올바르게 풀면 '지금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한다'이다.
③ O — '꼭'은 목표량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기어이 낚시하러 가겠다고 고집하는 '한사코'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깝다.
④ X — '내외분'은 '부부'를 높여 이르는 말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부사의 의미와 관계없는 명사이다. 올바르게 풀면 '대통령 부부가 식장으로 입장하겠습니다'이다.

오답 포인트

'참', '꼭', '-겠지'는 모두 문장의 느낌을 더할 수 있지만 의미 기능은 서로 다르다. ①의 '참'은 정도 강조, ②의 '-겠지'는 추측, ③의 '꼭'은 강한 의지이다. '한사코'의 핵심인 '끝까지 고집하여 기어이'와 연결되는 표현은 ③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사전적 동의어 하나로만 바꾸지 않고 문장 속 기능까지 확인한다. '한사코'를 '뜻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로 바꾼 뒤, 각 선지에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으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사코는 '끝까지 고집하여 기어이', 꼭은 문맥에 따라 '반드시'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① 흙덩이를 잘게 부신 후 가져가세요.
② 그릇과 그릇이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③ 이 파이프는 굵기가 너무 얇아서 안 되겠다.
④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겉잡을 수가 없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활용형의 표기, 낱말의 의미 관계, 소리가 비슷한 단어의 구별을 통해 문맥에 맞는 어휘를 쓸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부수다'의 관형형은 '부순'이고, 굵기의 정도는 '굵다·가늘다'로 나타낸다. '부딪치다'는 서로 힘 있게 마주 닿는다는 뜻이다. '걷잡다'는 쓰러지는 형세 등을 붙들어 잡는다는 뜻이고,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부신'은 '부수다'의 활용형으로 잘못 쓴 표현이다. '부수다'는 어간의 '우'가 탈락하여 '부순'으로 활용하므로, '흙덩이를 잘게 부순 후 가져가세요.'로 고쳐야 한다.

② O
두 그릇이 서로 힘 있게 마주 닿아 소리가 나는 상황이므로 '부딪치는'이 문맥과 표기에 모두 맞다.

③ X
'굵기'를 '얇다'로 나타낸 부분이 잘못되었다. 굵기의 정도에는 '굵다·가늘다'를 쓰므로 '이 파이프는 굵기가 너무 가늘어서 안 되겠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눈물을 억제할 수 없다는 문맥에서는 '겉잡을'이 아니라 '걷잡을'을 써야 한다. 따라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부신'은 발음대로 적기 쉽고, ④의 '겉잡다'와 '걷잡다'는 소리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또한 ③에서는 두께에 쓰는 '얇다'를 굵기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용형은 기본형을 먼저 확인하고, 형용사는 수식 대상과 의미상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소리가 비슷한 낱말은 문맥에 맞는 뜻을 대입하여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부수다→부순, 굵기→가늘다, 통제 불능→걷잡을 수 없다, 대강 짐작→겉잡다.

NoteBase

문 8. 문장의 호응 관계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는 행위 금지
② 한식은 매운 맛과 풍부한 영양가가 특징이다.
③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을 먹자.
④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과 조사가 알맞게 대응하고,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의 호응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나 부사어와 서술어처럼 서로 관계를 맺는 성분들이 문법적·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서술어가 한 성분을 공유할 때에는 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손을 대다'는 '작품에'와 호응하지만, '파손하다'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은 대상을 요구한다. 틀린 표현은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는'이며, '작품에 손을 대거나 작품을 파손하는 행위 금지'로 고쳐야 한다.

② O
주제어 '한식은'에 관하여 '매운 맛과 풍부한 영양가가 특징이다'라고 서술한 문장으로, 문장 성분의 의미 관계가 자연스럽다.

③ X
주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은 명사형 내용으로 풀이되는 서술어와 호응해야 하는데, 청유문 '먹자'로 바로 끝나 호응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바는 … 먹자'이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을 먹자는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원인은'에 이어 원인을 나타내는 서술 구조가 와야 하는데 '잘 몰랐어요'가 직접 이어져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원인은 … 잘 몰랐어요'이며,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작품에’가 두 서술어에 모두 걸리는 것처럼 보여 놓치기 쉽지만, ‘손을 대다’는 ‘에’를, ‘파손하다’는 ‘을/를’을 요구한다. ③과 ④는 뜻은 전달되더라도 각각 ‘바는 … 것이다’, ‘원인은 … 때문이다’의 호응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와 서술어를 짝지은 뒤, 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와 문장 종결 구조를 확인한다. 특히 ‘A는’ 뒤에는 A를 설명하는 서술어가, ‘원인은’ 뒤에는 ‘때문이다’와 같은 원인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을 대다’는 ‘대상에’, ‘파손하다’는 ‘대상을’, ‘원인은’은 ‘때문이다’와 호응한다.

NoteBase

문 9.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回( ):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 )命: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 )活: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① 復 ② 死 ③ 生 ④ 歸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어진 뜻에 맞게 세 단어를 모두 완성하는 공통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復(돌아올 복)은 돌아오다, 원래 상태를 되찾다, 다시 하다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回復은 원래 상태를 되찾음, 復命은 명령받은 일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함, 復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한다. 세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는 復이다.

선지별 해설

① 復 O: 回復·復命·復活이 모두 제시된 뜻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공통 한자이다.
② 死 X: 死는 '죽을 사'로, 回死·死命·死活은 제시된 세 뜻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다. 틀린 한자 死는 復으로 고쳐야 한다.
③ 生 X: 生은 '날 생'이다. 生命은 '생명', 生活은 '생활'이 되어 각각 '명령받은 일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과 맞지 않는다. 틀린 한자 生은 復으로 고쳐야 한다.
④ 歸 X: 歸는 '돌아갈 귀'로 回歸는 '본래 자리로 돌아감'이라는 말이 되지만, 歸命·歸活은 나머지 두 뜻에 맞는 단어가 아니다. 틀린 한자 歸는 復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돌아가다'라는 뜻만 보고 ④ 歸를 고르거나, '살아남'이라는 뜻만 보고 ③ 生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한 단어만 그럴듯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 단어가 모두 제시된 뜻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한자를 세 괄호에 모두 넣어 실제 단어를 만든 뒤, 완성된 모든 단어의 뜻이 제시된 풀이와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回復은 회복, 復命은 복명, 復活은 부활이며 공통 한자는 復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 주사는 요새 정거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 난 소화통이라는 큰길을 동쪽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바른손 편으로 꺾이어 개복동(開福洞) 복판으로 들어섰다.
>
> 예서부터가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
> 지금은 개복동과 연접된 구복동(九福洞)을 한데 버무려 가지고, 산상정(山上町)이니 개운정(開運町)이니 하는 하이칼라 이름을 지었지만, 예나 시방이나 동네의 모양다리는 그냥 그 대중이고 조금도 개운(開運)은 되질 않았다. 그저 복판에 포도 장치(鋪道裝置)도 안 한 십오 간짜리 토막길이 있고, 길 좌우로 연달아 평지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대로 사뭇 언덕 비탈이다.
>
> 그러나 언덕 비탈의 언덕은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 급하게 경사진 언덕 비탈에 게딱지 같은 초가집이며, 낡은 생철집 오막살이들이, 손바닥만 한 빈틈도 남기지 않고 콩나물 길듯 다닥다닥 주어박혀, 언덕이거니 짐작이나 할 뿐인 것이다. 그 집들이 콩나물 길듯 주어박힌 동네 모양새에서 생긴 이름인지, 이 개복동서 그 너머 둔뱀이[屯栗里]로 넘어가는 고개를 콩나물 고개라고 하는데, 실없이 제격에 맞는 이름이다.
>
>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래[京浦里]', 이러한 몇 곳이 군산의 인구 칠만 명 가운데 육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옴닥옴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십 분의 일도 못 되는 땅이다.
>
> 그뿐 아니라 정리된 시구(市區)라든지, 근대식 건물로든지, 사회 시설이나 위생 시설로든지, 제법 문화 도시의 모습을 차리고 있는 본정통이나, 전주통이나, 공원 밑 일대나, 또 넌지시 월명산(月明山)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지대나, 이런 데다가 빗대면 개복동이니 둔뱀이니 하는 곳은 한 세기나 뒤떨어져 보인다. 한 세기라니, 인제 한 세기가 지난 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고만큼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싶질 않다.
>
> — 채만식, 「탁류」 —

①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역설적 의미가 구성된다.

② 구체적 지명을 활용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시대적 상황이 드러난다.

③ 과거 상황과 사뭇 다른 현실 상황을 대조함으로써 변화에 민감한 세태의 면모가 극화된다.

④ 인물의 내적 갈등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고통이 나타난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구체적인 지명과 공간 묘사가 작품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간적 배경은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일 뿐 아니라, 지명·거리·건물·주거 환경의 묘사를 통해 당대의 생활상과 사회 구조를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 글은 정거장,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본정통, 전주통 등 실제적인 지명과 공간의 대비를 활용해 군산의 도시 모습과 조선인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구체화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서술'과 '역설적 의미'이다. 글은 여러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정 주사가 이동하는 길과 그 주변 공간을 따라가며 지역의 모습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공간의 이동과 묘사를 통해 군산의 도시 현실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② O — 정거장,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쓰레 등 구체적인 지명과 본정통·전주통 같은 근대적 거리의 대비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근대화 이면에서 조선인 다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이 드러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과거 상황과 사뭇 다른 현실 상황을 대조'와 '변화에 민감한 세태'이다. 글은 과거보다 나아진 현재를 보여 주지 않고, 오래도록 뒤떨어진 채 남은 조선인 거주지와 근대적 도시 공간의 격차를 부각한다. 올바르게는 도시 공간의 대비를 통해 조선인들의 가난한 생활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물의 내적 갈등'이다. 정 주사의 심리적 갈등이나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통은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서술자가 공간의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설명하여 시대의 모순과 열악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글에 '한 세기'와 같은 시간 표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③의 과거와 현재의 대조로 판단하거나,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④의 내적 갈등을 추론하면 안 된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지명과 근대적 거리·낙후된 조선인 거주지의 대비가 핵심 근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이해 선지는 표현상의 근거를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지명이 반복되고 거리·건물·주거 환경이 자세히 묘사되면 그 공간이 어떤 시대상과 사회 현실을 보여 주는지 살핀다. 본문에 사건의 병렬, 과거와 현재의 뚜렷한 변화, 인물의 심리 진술이 없다면 이를 주장하는 선지는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구체적 지명과 공간의 대비는 시대상과 사회 현실을 드러낸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1. ~ 문 12.]

>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른 창작 행위들에 비해 좀 더 소박하긴 하지만 결코 그것들에 뒤지지 않는 창조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은 배우지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이는 어떤 책에 대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가정이 한 번도 의문시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읽지 않은 어떤 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 표명하기 위한 어떤 방도도 찾아낼 수 없어서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
> 그런 혼란은 책을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역할을 교육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책을 꾸며낼' 권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텍스트에 대한 존중과 수정 불가의 금기에 마비당하는데다 텍스트를 암송하거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속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상상력이 유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을 스스로 금해 버린다.

문 11. 글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주장은?

① 독서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많은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③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는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서 독서의 의미를 찾아야 진정한 독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④ 좋은 책을 골라 읽지 않고 무분별하게 독서하는 것은 독자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방해하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책을 신성시하며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재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책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글의 중심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의 중심 주장은 여러 문단에서 반복·강조되는 문제의식과 필자의 평가를 묶어 찾는다. 이 글은 '책을 읽어야만 그 책에 관해 말할 수 있다'는 통념과 텍스트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창조적 활동의 가치를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독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독서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이며, 올바르게는 책의 내용을 암송·재현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② O — 많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텍스트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문의 중심 내용과 가장 유사하다.
③ X — 지문은 어떤 책을 읽느냐와 책을 읽는 행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서 독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책을 반드시 읽고 그 내용을 알아야만 말할 수 있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지문이 문제 삼는 것은 좋은 책을 선별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읽는 행위가 아니라, 책을 신성시하고 그 내용을 암송하거나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틀린 표현은 '좋은 책을 골라 읽지 않고 무분별하게 독서하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텍스트에 대한 지나친 존중과 내용 재현의 강박이 상상력과 창의성의 발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독서'와 '창의성'이라는 지문의 소재를 일부 사용하지만, 각각 독서 습관과 좋은 책의 선별이라는 지문에 없는 논점을 덧붙인다. ③도 독서의 의미를 말하지만, 지문의 대립축인 '내용의 암송·이해에 대한 강박'과 '자유로운 생각·상상력의 표현'을 놓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 일치 문제에서는 반복되는 비판 대상과 필자가 긍정하는 태도를 먼저 짝지어 본다. 이 글의 비판 대상은 책의 신성화와 내용 재현의 강박이고, 긍정 대상은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의 표현이므로 두 요소를 함께 담은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책의 내용 재현보다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의 표현이 핵심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1. ~ 문 12.]

>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른 창작 행위들에 비해 좀 더 소박하긴 하지만 결코 그것들에 뒤지지 않는 창조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은 배우지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이는 어떤 책에 대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가정이 한 번도 의문시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읽지 않은 어떤 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 표명하기 위한 어떤 방도도 찾아낼 수 없어서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
> 그런 혼란은 책을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역할을 교육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책을 꾸며낼' 권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텍스트에 대한 존중과 수정 불가의 금기에 마비당하는데다 텍스트를 암송하거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속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상상력이 유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을 스스로 금해 버린다.

문 12. ㉠을 바꿔 쓸 때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밝히기　② 바꾸기
③ 더하기　④ 꾸미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 속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낱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의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명하다'는 자신의 의사나 태도, 생각 따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힌다는 뜻이다. 이 글의 '자신들의 생각을 표명하기'는 학생들이 읽지 않은 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어 밝힌다는 의미이므로 '밝히기'로 바꿀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밝히기’는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이므로 문맥 속 ‘표명하기’와 의미가 가장 가깝다.
② X — ‘바꾸기’는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른 것으로 고친다는 뜻이어서, 생각을 드러낸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바꾸기’가 아니라 ‘밝히기’가 알맞다.
③ X — ‘더하기’는 보태어 늘린다는 뜻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를 나타내지 못한다. ‘더하기’가 아니라 ‘밝히기’가 알맞다.
④ X — ‘꾸미기’는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거나 내용을 지어낸다는 뜻이어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의미와 다르다. ‘꾸미기’가 아니라 ‘밝히기’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표명하다’를 단순히 생각에 손을 대는 행위로 넓게 이해하면 ‘바꾸기’, ‘더하기’, ‘꾸미기’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생각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낱말을 쉬운 말로 풀어 문장에 넣어 본 뒤 앞뒤 문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생각·의사·태도를 표명하다’는 문맥에서는 ‘드러내다’ 또는 ‘밝히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표명하다 = 생각이나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어 밝히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판소리는 전체적인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한 장면의 의도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의 충실한 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면 극대화의 원리'가 적용되곤 한다. 이로 인해 서사적 요소인 사설의 형식적 논리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판소리의 관례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판소리는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전하고자 하는데 삶은 논리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면이 있다. 딸을 판 아버지라면 남은 생을 고뇌와 비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논리적이겠지만, 이것이 삶의 전면적 진실은 아니다. 극도의 슬픔에 빠진 인간에게도 다시 웃을 일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웃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시간이 흐른 뒤 심 봉사처럼 딸을 판 대가로 받은 많은 돈을 자랑하며 마을을 어슬렁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삶과 관련지어 본다면 심 봉사의 골계적인 모습은 비탄으로 시종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풍자가 판소리 특유의 재미를 낳는다. 판소리는 이처럼 삶의 진실성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① 판소리, 기원과 역사를 찾아서
② 판소리, 전통 계승의 길을 찾아서
③ 판소리, 삶의 전면적 진실을 찾아서
④ 판소리, 다양한 관객의 비밀을 찾아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의 제목은 반복되는 핵심 화제와 필자의 중심 주장을 함께 포괄해야 한다. 이 글은 판소리가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다양한 국면을 담아 삶의 진실성을 예술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을 말한다.

핵심 개념

적절한 제목은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면서 중심 생각을 압축한 표현이다. 이 글에서 판소리는 슬픔과 웃음, 논리와 현실적 욕망 등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는 예술로 설명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글은 판소리의 발생 배경이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기원과 역사를 찾아서'이다. 올바르게는 '판소리, 삶의 다양한 국면을 찾아서'와 같이 중심 내용을 드러내야 한다.
② X — 글은 판소리가 후대에 전승된 과정이나 전통 계승의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전통 계승의 길을 찾아서'이다. 올바르게는 '판소리, 삶의 진실성을 예술로 승화하여'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③ O — 글은 아버지의 논리적 선택만을 삶의 전면적 진실로 보지 않고, 딸의 웃음과 심 봉사의 현실적 욕망까지 포괄하는 판소리의 성격을 설명한다. 따라서 '삶의 전면적 진실을 찾아서'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한다.
④ X — 청중의 추임새와 풍자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관객의 숨겨진 사정을 탐색하는 글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다양한 관객의 비밀을 찾아서'이다. 올바르게는 '판소리, 삶의 다양한 모습과 진실을 찾아서'와 같이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글에 '시중'과 '풍자'가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그러나 이 소재는 판소리의 재미와 삶의 현실성을 보여 주는 예일 뿐, 관객의 비밀이 중심 화제는 아니다. 제목은 일부 소재가 아니라 글 전체를 관통하는 생각을 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을 고를 때는 각 선지가 글의 일부 표현과만 연결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핵심 화제와 결론을 모두 포괄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삶의 다양한 국면'과 '삶의 진실성'이 결론까지 이어지므로 이를 담은 선지가 적절하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부분 소재가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압축한다. 이 글의 핵심은 '판소리 = 삶의 다양한 국면을 담아 진실성을 드러내는 예술'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 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
> 나는 바다로 가서
> 가장 신나게 시퍼런 / 파도의 칼날 하나를 / 집어 들었다.
> – 전봉건, 「피아노」 –

① 의인화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② 인간과 다른 대상의 면모를 들추어 자연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③ 이미지의 연상을 통해 제재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상반된 계절적 배경의 대치를 통해 현실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피아노 연주의 청각적 인상을 물고기, 빛, 파도와 같은 역동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효과와 그 속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미지의 형상화는 추상적인 감각이나 정서를 구체적인 장면처럼 느끼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시에서는 피아노 연주에서 퍼져 나오는 소리를 '신선한 물고기', '튀는 빛의 꼬리', '시퍼런 파도의 칼날'로 바꾸어 나타낸다. '신나게'라는 표현과 생동감 있는 이미지에는 연주에서 느낀 화자의 흥겨움과 강렬한 감흥이 담겨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부정적 태도'라는 판단이 틀리다. 시에는 제재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이 없고, '신선한', '신나게', 역동적으로 쏟아지는 물고기와 파도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고양된 정서를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피아노 연주에 대한 화자의 신나고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한다고 해야 한다.
② X — '인간과 다른 대상의 면모를 들추어 자연의 가치를 예찬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물고기와 바다는 자연 자체를 예찬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피아노 연주의 소리와 감흥을 구체화하는 비유적 이미지이다. 올바르게는 인간의 피아노 연주를 자연물의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바꾸어 연주의 활력과 화자의 감흥을 나타낸다고 해야 한다.
③ O — '신선한 물고기', '튀는 빛의 꼬리', '시퍼런 파도의 칼날'이라는 선명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피아노 연주를 듣는 화자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가장 신나게'는 제재인 피아노 연주에서 받은 흥겨움과 고양감을 직접 드러낸다.
④ X — '상반된 계절적 배경의 대치'와 '현실의 의미 부정'이 모두 틀리다. 시에는 서로 대립하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으며 현실을 부정하는 내용도 없다. 올바르게는 피아노 연주와 바다의 이미지를 유사한 역동성으로 연결하여 연주에서 받은 강렬한 감흥을 나타낸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물고기·바다·파도 같은 자연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연 예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문항에서 자연 이미지는 독립적인 제재가 아니라 피아노 소리와 화자의 감흥을 감각적으로 보여 주는 비유 장치이다. 또한 ④의 '계절적 배경'은 시에 근거가 없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반복되는 감각적 이미지가 무엇을 대신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이어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수식어를 찾는다. 이 시에서는 물고기·빛·파도가 피아노 연주의 소리를 대신하고 '신나게'가 화자의 정서를 밝혀 주므로, 이미지가 제재에 대한 화자의 고양된 느낌을 드러낸다는 판단에 이른다.

암기 포인트

피아노 소리 → 물고기·빛·파도의 이미지 → 신나고 역동적인 감흥이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다친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수를 다 썼다.
② 다친 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수를 다 썼다.
③ 다친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 수를 다 썼다.
④ 다친 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 수를 다 썼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 '데', 한 단어인 '별수', 어간에 붙는 연결 어미 '-려'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데'가 '곳·장소·부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면 앞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다친 데'로 쓴다.
'별수'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라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별수를'로 붙여 쓴다.
'-려'는 어떤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 '찾-'에 붙여 '찾으려'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다친데'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데'는 다친 곳이나 부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다친 데'로 띄어 써야 한다. '찾으려'와 '별수를'은 바른 표기이다.
② O — 장소·부분을 뜻하는 의존 명사 '데'를 띄어 '다친 데'로 썼고, 연결 어미가 결합한 '찾으려'와 한 단어인 '별수를'도 바르게 썼다.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다.
③ X — '다친데'와 '별 수를'이 잘못되었다. 각각 '다친 데'와 '별수를'로 고쳐야 한다. '찾으려'는 바른 표기이다.
④ X — '별 수를'이 잘못되었다. '별수'는 한 단어이므로 '별수를'로 고쳐야 한다. '다친 데'와 '찾으려'는 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데'가 어미로 쓰일 때와 의존 명사 '데'로 쓰일 때를 혼동하거나, '별수'를 '별'과 '수'로 나누어 쓰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다친 곳'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으므로 '데'를 띄고, '달리 방법'이라는 뜻의 '별수'는 붙여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데'를 '곳·장소·부분'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사전에 한 단어로 굳어진 명사 '별수'는 붙여 쓰고,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려'는 어간에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다친 데는 띄고, 별수는 붙이고, 찾으려의 '-려'도 붙인다.

NoteBase

문 16.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벗다'의 반의어가 '옷을 벗었다.'의 경우에 '입다'이지만 '모자를 벗었다.'의 경우에는 '쓰다'이다.

① 산 그림자가 <u>깊다</u>. – 옅다
② 그녀는 생각이 <u>깊다</u>. – 가볍다
③ 선생님의 병환이 <u>깊다</u>. – 가깝다
④ 우리나라는 역사가 <u>깊다</u>. – 짧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다의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라지면 반의어도 그 의미에 맞게 달라진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다의어는 한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뜻을 지닌 말이다. 반의어는 단어의 형태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나타내는 뜻을 먼저 확인하여 정한다. '깊다'는 문맥에 따라 빛이나 색이 짙다, 생각이 신중하고 무게가 있다, 병세가 심하다, 시간이 오래되었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산 그림자가 깊다'의 '깊다'는 그림자가 짙고 선명하다는 뜻이다. 그 정도가 약하다는 뜻의 '옅다'가 문맥에 맞는 반의어이다.
② O —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신중하고 무게가 있다는 뜻이다. 생각이 신중하지 못하고 무게가 없다는 뜻의 '가볍다'가 문맥에 맞는 반의어이다.
③ X — '선생님의 병환이 깊다'의 '깊다'는 병세가 심하다는 뜻이므로 '가깝다'는 반대 의미가 아니다. 틀린 표현 '가깝다'는 '가볍다'로 고쳐 '선생님의 병환이 깊다 — 가볍다'로 대응해야 한다.
④ O — '우리나라는 역사가 깊다'의 '깊다'는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시간의 길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의 '짧다'가 문맥에 맞는 반의어이다.

오답 포인트

'깊다'에 언제나 하나의 반의어만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③의 '가깝다'는 '깊다'의 공간적 의미와 막연히 연결한 표현이지만, 이 문장의 '깊다'는 거리와 관계없이 병세가 심하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다의어를 문맥에 맞는 쉬운 말로 먼저 바꾼 뒤 그 쉬운 말의 반대말을 찾는다. 이 문항에서는 '짙다—옅다', '신중하고 무게가 있다—가볍다', '심하다—가볍다', '오래되다—짧다'의 관계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다의어는 문맥이 뜻을 정하고, 정해진 뜻이 반의어를 정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세기 중반까지 일반적 독서법은 소리 내 읽는 음독(音讀)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묵독(默讀)이었다. 책의 양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정독(精讀)하는 집중형 독서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이 점차 산업화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8세기 중반, 책 생산량이 이전의 3, 4배로 증가하면서 집중형 독서는 다독(多讀)하는 분산형 독서로 바뀌었다. 20세기 후반 인류는 또 한 번의 독서 혁명을 겪게 된다. 인터넷 혁명을 통해 검색형 독서가 극대화된 것이다. 검색형 독서에서 독자(reader)는 사용자(user)가 되었다. 이제 독자는 필요한 텍스트만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텍스트를 수정하고 그것에 개입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리를 의식한 텍스트, 구어를 활용한 문장, 음성을 글자에 담은 이모티콘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집중형 독서는 다독보다는 정독에 어울리는 독서 방식이겠군.
② 검색형 독서 방식에서는 독자가 생산자의 역할도 할 수 있겠군.
③ 분산형 독서 방식으로의 변화가 구어를 활용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겠군.
④ 책의 양적 증가와 독서 방식의 변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겠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책의 양과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서 방식이 정독에서 다독으로, 다시 검색형 독서로 바뀌었다는 글의 내용을 바르게 추론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집중형 독서는 적은 양의 책을 깊이 읽는 정독 중심의 방식이고, 분산형 독서는 늘어난 책을 폭넓게 읽는 다독 중심의 방식이다. 검색형 독서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골라 읽고, 독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개입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에서 집중형 독서는 책의 양이 많지 않던 시기에 보편적이었던 방식이며, 다독이 아니라 책을 깊이 읽는 정독에 어울린다.
② O — 검색형 독서에서는 독자가 텍스트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정하고 개입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분산형 독서 방식으로의 변화가 구어를 활용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다'이다. 분산형 독서는 책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정독에서 다독으로 바뀐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인터넷 혁명에 따른 검색형 독서가 소리를 의식한 텍스트, 구어를 활용한 문장, 이모티콘 등의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야 한다.
④ O — 책의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집중형 정독이 보편적이었고, 책 생산량이 증가하자 분산형 다독으로 바뀌었으므로 책의 양적 증가와 독서 방식의 변화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글에 나온 두 변화의 원인을 뒤섞은 선지이다. '정독에서 다독으로의 변화'는 책 생산량 증가와 연결되고, '구어·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텍스트 생산'은 인터넷 혁명과 검색형 독서의 등장에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독서 방식의 특징만 확인하지 않고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짝지어 판단한다. 책의 양 증가 → 집중형 정독에서 분산형 다독으로 변화, 인터넷 혁명 → 검색형 독서와 독자의 텍스트 생산 참여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책 증가에는 정독→다독, 인터넷에는 검색·수정·생산이 대응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침체된 재래시장이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표 방안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품권 사업이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의 지붕을 만드는 공사가 중심이었으나 단순하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 사업도 명절 때마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무엇일까? 기존의 재래시장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주 고객이었다. 재래시장이 발전하려면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경쟁자인 대형 유통 업체와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만 탓하거나 관련 기관의 지원만 바라지 말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도 물고기를 바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대형 유통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재래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① 대상을 종류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필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에 실제로 사용된 서술 방식이 분류, 비유, 문답, 문제·해결 구조 가운데 무엇인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류는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비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문답은 질문을 제시한 뒤 그에 답하는 방식이다. 문제·해결 구조는 현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글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대상을 종류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기존 방안의 한계를 지적한 뒤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기르는 근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다.
② O — '배가 고프다고 해도 물고기를 바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단기적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존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③ O — '무엇이 필요한가?', '근본 방안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 뒤 시설 현대화·상품권 사업의 한계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어서 답하고 있으므로 문답 방식이 사용되었다.
④ O — 시설 현대화 사업이 획일적이고 상품권 사업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젊은 고객의 기호 파악, 대형 유통 업체와의 차별화, 자생력 강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오답 포인트

글에 여러 방안이 나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①의 '종류별 분류'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분류가 성립하려면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위 종류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 글은 기존 방안의 한계와 새로운 해결책을 순서대로 논의할 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방식은 표현의 겉모양이 아니라 글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 판단한다. 분류는 '기준에 따른 종류 나누기', 비유는 '다른 대상에 빗대기', 문답은 '질문 뒤 답 제시', 문제·해결은 '문제점 뒤 개선 방안 제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여러 항목의 단순 나열은 분류가 아니다. 분류에는 반드시 일정한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하위 종류가 필요하다.

NoteBase

문 19. 다음 내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옛 자취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다. 새것을 만드는 사람은 이치에 합당치 않은 것이 걱정이다. 진실로 능히 옛것을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면서 법도에 맞을 수만 있다면 지금 글도 옛글만큼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① 一日三秋　② 先憂後樂
③ 送舊迎新　④ 溫故知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핵심 내용과 한자 성어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제시문은 옛것을 충분히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온고지신과 가장 잘 어울린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일일삼추(一日三秋)는 하루가 삼 년처럼 길게 느껴질 만큼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이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내용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② X — 선우후락(先憂後樂)은 세상 사람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뜻으로, 공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뜻하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공익을 먼저 걱정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태도를 가리킨다.
③ X — 송구영신(送舊迎新)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이다.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을 나타낸다.
④ O —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옛 자취에서 배우되 변화하고 새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시문의 핵심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옛것'과 '새것'이 함께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송구영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송구영신은 묵은해와 새해의 교체를 뜻하고, 제시문은 옛것을 학습의 바탕으로 삼아 새것을 창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반복어보다 논리 관계를 확인한다. '옛것을 익힘 → 새것을 앎·창조함'의 관계이면 온고지신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송구영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이다.

NoteBase

문 20.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꿈에 단니는 길히 자최곳 날쟉시면
님의 집 창(窓) 밧긔 석로(石路)라도 달흐리라
꿈길히 자최 업스니 그를 슬허ᄒᆞ노라.

(나) 비 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①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이별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③ 인식을 전환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상황을 과장하여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절실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두 작품에 공통으로 쓰인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장법은 실제보다 크거나 강하게 표현하여 대상이나 정서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가)는 꿈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임의 집 창밖 돌길이 닳을 정도로 자주 다녔을 것이라고 하고, (나)는 해마다 흘리는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 물에 더해져 강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두 작품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상황을 과장하여 이별의 슬픔과 임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두 작품 모두 시적 대상과 직접 말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독백적 진술을 통해 임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슬픔과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② X — 두 작품의 핵심 표현은 겉으로 모순되는 역설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게 나타내는 과장이다. 또한 중심 정서는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다. 올바르게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을 향한 절실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표출한다고 해야 한다.
③ X — 두 작품에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 끝까지 이어지며 오히려 과장되어 강조된다. 올바르게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슬픔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④ O — (가)의 '돌길이라도 닳으리라'와 (나)의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은 모두 현실의 정도를 넘어 상황을 과장한 표현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 매우 절실함을 드러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정된 상황이 현실과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역설로 판단하면 안 된다. 두 구절은 모순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돌길이 닳을 만큼', '눈물이 강물에 더해질 만큼' 정서의 크기를 부풀린 과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통 표현법을 묻는 문제에서는 두 작품에서 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키운 구절을 각각 찾는다. 실제로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량·정도·상황을 크게 나타냈다면 과장법이며, 그 과장이 강조하는 공통 정서까지 선지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돌길이 닳고 눈물이 강물에 더해진다: 과장된 상황으로 절실한 이별의 정서를 강조한다.

NoteBase